訓民歌系 時調의 一 表現

尹 榮 玉

1.

愼齋 周世鵬은 海西에 있을 때 民俗이 貧貧함을 보고 《五倫歌》를 지어 一路에 布施해 人之大倫을 밝혔고, 松江 鄭澈은 江原道 監司로 있을 때 陳古靈(襄)의 《論文諸條》에 依據하고 또 君臣·長幼·朋友에 관한 것을 더하여 短歌 16章(訓民歌)를 지어 百姓들로 하여금 의어 익혀 입으로 읊조리도록 하여 人之性情을 感發케 했다. 蘆溪 朴仁老도 《五倫歌》를 짓고 마지막 그 〈總論〉에서 "天地間 萬物中에 사람이 最貴하니, 最貴한 바는 五倫이 아니온가. 사람이 五倫을 모르면 不遠禽獸하리라. 幸玆乘彝心이 古今업서 다 이실서 爰輯舊聞하야 二三篇을 지어시니, 嗟哉後生들아 삼가보고 힘서하라. 仔細히 살펴보면 뉘아니 感激하리. 文字는 拙하되 誠意을 싹여시니, 진실로 熟讀詳味하면 不無一助하리라."고 읊고 있다.

俛仰亭 宋純의 《五倫歌》 5首의 漢譯歌가 『俛仰集』에 실려 있고, 水西 朴善長의 《五倫歌》 8首가 『水西集』에 실려 있으며, 梅竹 李淑樑의 《汾川講好錄》과 仙源 金尙容의 《訓戒子孫歌》, 朗原君 俔의 作品들도 다 五倫에 바탕을 둔 訓民歌라 할 수 있다.

明의 沈易은 童蒙에게 五倫의 道를 가르치기 위해 지은 詩들을 모아 『五倫詩』 五卷을 編했으며, 明의 宣宗은 『五倫書』 62卷을 御撰하여 天下에 頒布한 적이 있다.

五倫뿐만이 아니고 宗族·師生에 관한 義까지도 「五倫行實圖」에는 실려 있으니, 이러한 계열의 時調를 '訓民歌係'라 하여 함께 묶어 考究해 보고자 하나, 本稿에서는 '父子之倫'에 해당하는 作品의 表現에 대해서만 重點的으로 살펴본다.

2.

黑窩 鄭潤卿은 『靑丘永言』의 序文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즉 옛날 노래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라는 것은 반드시 詩를 사용했다. 노래부르고 글로 옮겨 놓은 것이 詩가 되며, 詩로서 樂器[管絃]에 얹은 것이 노래가 되었기 때문에 노래와 詩라는 것은 진실로 한 가지 길이다. 『詩經』 三百篇으로부터 變하여 古詩가 되었고, 古詩가 變하여 近體詩가 되어 노래와 詩는 나뉘어 둘이 되었다. 漢魏이래로 詩로서 音律에 맞은 것을 일러 樂府라 하였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使用되지 않았으며, 陳隋이후에 또 歌詞別體가 있어 世上에 傳했으나 詩歌의 盛함만 같지 못했다. 歌詞를 짓는 것이 文章力이 없고 聲律에 精通하지 못하면 不可能하기 때문이리라. 그래서 詩에 能한 자가 반드시 노래를 잘 하는 것도 아니고 노래를 하는 자라고 해서 반드시 詩를 잘 짓는 것도 아니다. 國朝이래로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歌詞를 지음이 전혀 없었던 바는 아니나, 있어도 또한 오래 傳해질 수 없었다. 나라에서 文學만 오로지 숭상하고 音樂에는 等閑했기 때문이리라. ……오호라, 무릇 이 歌詞(靑丘永言所收詩歌)를 지은 자들 오직 그 생각을 敍述하고, 그 울분만을 편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感動케 하고 興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것들이 또한 그 가운데 있으니 樂府에 얹어 사용한다면 또한 足히 風化의 一助가 될 것이다. 그 歌詞가 詩의 교묘함을 반드시 다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世道에 有益함이 오히려 많은데 세상의 君子들이 버려 두고 채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도 音律을 감상할 수 있는 자가 적어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리라.

옛날에는 歌와 詩가 分離된 것이 아닌 하나였다. 一道였던 詩歌가 文章과 聲律로 分化되어 그것을 兼全하는 者가 드물게 되었고 樂府나 歌詞의 제작도 아울러 드물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나. 文學을 오로지 숭상하고 음악을 등한히 하여 歌詞를 지음이 드물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하는 자가 드물었다. 그리고 이러한 歌詞가 詩의 技巧를 다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사람을 感發 興起케 하여 風化의 一助가 된다고 했다.

退溪 李滉은 《陶山十二曲》의 跋文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즉, 대개 性情에 느낌이 있으면 詩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지금의 詩는 옛날의 詩와 달라 읊조릴 수는 있으나 노래부를 수 없으니 노래부르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 말로 엮어야 한다. 우리의 音節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래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찌기 李鼈의 六歌를 모방하여 陶山六曲 둘을 지었는데, 하나는 言志요 또 하나는 言學이다. 아이들로 하여금 아침 저녁으로 익혀 노래부르게 하고 책상에 기대어 듣고자 했노라. 지금 아이들은 스스로 노래부르고 스스로 춤을 추니 가히 鄙吝을 씻고 서로 감동되어 노래부르는 자나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듣는 자 함께 감동하여 유익함이 없지 않으니라.

退溪도 性情에 느낀 바가 詩로 나타난 古詩의 경우 詩歌一道의 詩歌觀을 規定하고 古詩와 다른 當代의 詩는 노래부를 수 없다고 했다. 물론 이 때의 詩는 漢詩를 가리킨 것이다. 그래서 노래부르고자 한다면 漢詩에 우리말을 엮어 넣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陶山十二曲》을 지어서 노래부르게 하였으니, 이 《陶山十二曲》은 歌詞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 歌詞를 노래부르면 부르는 자나 듣는 자 다 같이 鄙吝을 씻고 서로 감동케 되어 유익함이 있다고 했다.

『靑丘永言』에 收錄된 作品이나 《陶山十二曲》을 우리는 〈時調〉라고 말하는데, 앞의 黑窩나 退溪는 〈詩〉와는 다른 〈歌詞〉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歌詞〉는 노래부를 수 있는 것이며, 생각을 叙述하고 울분을 펼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感發興起케 하나 詩의 技巧를 반드시 다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詩經』의 序에는 "得失을 바로하고, 天地를 움직이고, 鬼神을 感動시킴에 詩보다 더한 것은 없다. 先王은 이로써 夫婦를 바로잡고, 孝와 敬을 이룩하게 하고, 人倫을 두텁게 하고 敎化하여 아름답게 風俗을 고치셨다"고 했고 『論語』에도 "詩는 사람의 뜻을 분발시키고 事物을 觀察할 수 있게 하고, 서로 더불어 즐길 수 있게 하고, 怒하지 않고 잘못을 꾸짖을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詩觀은 一然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新羅人이 그들의 노래를 숭상한 것이 오래였다. 이것은 대개 詩頌과 같은 것인데, 그 때문에 종종 天地鬼神을 감동시킨 것이 많다"고 하였다.

이 때의 〈詩〉는 一道였던 詩歌를 말해 주나 後代에 와서는 〈歌〉에 자리를 넘겨 준 것이다. 〈時調〉는 〈歌〉이며, 文獻에 記錄되어 傳하는 時調들은 歌의 〈詞〉이다.

이들 〈歌詞〉 가운데 訓民歌系 時調는 앞에서 말한 〈古詩〉의 技能 一部를 그대로 持續시켜 가고 있는 것이다.

3.

『詩經』 小雅篇 谷風之什 《蓼莪》에

"더부룩한 저것은 새발쑥인 듯.
아니아니 그것은 다북쑥이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이치 옵나, 그러운 우리 부모님
나를 낳고 가진 고생 다 하시었네.

……中 略……

아버님 어머님 나를 낳으사
갖은 고생 다하여 길러 내셨네.
쓰다듬어 주시고 먹여 주시고
키우시고 자라게 하여 주셨네.
돌보시고 또 다시 살피보시고
나고 들며 따뜻이 안아 주셨네.
크나큰 이 은덕을 갚으려 해도
하늘은 나에게 무정하셔라."[1]

……下 略……

『小學』에서는 曾子의 말로 "몸이란 것은 부모의 끼치신 얼굴이니 부모 끼치신 얼굴을 가지고 다니되 감히 공경치 아니하랴. 상해 있음에 엄정치 아니함이 효도 아니며, 임금 섬김에 충성치 아니함이 효도 아니며, 벼슬살이에 임함에 공경치 아니함이 효도 아니며, 벗에게 믿이 아니함이 효도 아니며, 싸움싸우는 항진에 용맹없음이 효도 아니니, 다섯 것을 이루지 못하면 재화가 그 어버이에게 미치리니 감히 공경치 아니하랴"[2]라고 하였다.

新羅時 圓光法師는 貴山과 箒項에게 《世俗五戒》를 일러 주었으며, 忠談은 景德王에게 理世安民한 노래를 지어 바쳤다. 朝鮮初에는 禮曹에 의해 所謂 景幾體歌라는 《五倫歌》가 지어졌다. 그 一部를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判陰陽 位高下 天尊地卑
生萬物 厚黎民 代作聖賢
仁義禮智 三綱五常 秉彝之德
위 萬古流行ㅅ景 긔 엇더ᄒᆞ니잇고
〔葉〕伏羲神農 皇帝堯舜 伏羲神農 皇帝堯舜
위 立極ㅅ景 긔 엇더ᄒᆞ니잇고(1)

---

1) 蓼蓼者莪 匪莪蒿哀 哀哀父母 生我劬勞
……中 略……
父兮生我 母兮鞠我 拊我畜我 長我育我
顧我復我 出入腹我 欲報之德 昊天罔極
……下 略……

2) 小學, 明倫二. 曾子曰 身也者 父母之遺體也 行父母之遺體 敢不敬乎 居處不莊非孝也 事君不忠非孝也 莅官不敬非孝也 朋友不信非孝也 戰陣無勇非孝也 五者不遂 戕及其親 敢不敬乎.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父爲天 母爲地 生我劬勞
養以乳 敎以義 欲報罔極
泣竹笋生 扣氷魚躍 至誠感神
의 養老人景 긔 엇더ᄒᆞ니잇고
〔葉〕 曾參閔子 兩先生의 曾參閔子 兩先生의
의 定省人景 긔 엇더ᄒᆞ니잇고(2)

世宗 16年(1434)에는 집현전 부제학 偰循이 世宗의 命을 받아 『三綱行實圖』를 편찬했고, 成宗代에는 이것을 諺解했다. 中宗代에는 經筵에서 侍講할 때 金安國이 講述한 〈長幼〉·〈朋友〉에 관한 것을 司譯院正인 曺伸에게 命하여 정리케 하여 『二倫行實圖』를 펴내었다.

『三綱行實圖』의 序文에 經筵檢討官 權採는 다음과 같이 써놓았다.

"이제 우리 주상전하께서는 神聖하신 천품으로 君師의 道를 다하시어 공을 이루고 정치를 바르게 하심으로서 만 가지 조목이 모두 확장되었으며, 綱常을 扶植하고 世道를 유지하는 것으로 근본을 삼으니 모든 名敎에 관계 있는 일은 의논하고 연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며, 항상 쓰는 法典을 지어 몸소 행하고 마음에 얻은 나머지 백성을 교화시킨 것이 이미 극진한 데 이르게 되었다. 그러면도 오히려 興起시키는 방법이 미진한 바가 있을까 하여 이 책을 번들어 민간에 널리 반포하여 어진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의 차이가 없이 어린이나 부녀자들까지도 모두가 보고 배워서 즐겨 듣도록 했다. 그림을 펴 보면 그 형용까지도 상상할 수가 있으며, 詩를 읊으면 그 심정까지도 몸으로 얻어 알 수가 있어서, 누구든지 흠모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격려하여 다같이 타고난 착한 마음을 감동시키고, 다같이 당연히 행해야 할 직분을 나음껏 하지 않을 자가 없을 것이다."

『三綱行實圖』와 『二倫行實圖』를 합하여 『五倫行實圖』를 만들었는데, 여기 收錄된 사람은 孝子 33, 忠臣 35, 烈女 35, 兄弟 24, 朋友 11, 宗族 7, 師生 5, 모두 150명이다. 이 『五倫行實圖』의 序에 經筵參贊官인 李晩秀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이 책의 내용을 말하면, 위로 순결한 행실과 아름다운 절개를 싣고, 옆으로 높은 功烈과 거룩한 모범될 일만을 채취한 다음, 글로 기록하고 그림으로 형용하여, 詩로 읊고 찬으로 기리어 필부필부로 하여금 책을 펴서 한번만 눈으로 보아도 그 감동된 마음과 애절한 심정이 자연히 생기게 했다. 신하로서는 충성하고, 자식으로서는 효도하고, 아내로서는 정조를 지키며, 이른을 어른으로 대접하고, 친구를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천구로 대립한다는, 각자가 타고난 성품과 당연히 해야 할 직분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책이 朝鮮의 聖君 世宗大王에 의해 著述되기 시작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백성을 倫理的인 참다운 인간으로 敎化시켜 보자는 데 그 근본 뜻이 있었음은 물론이려니와, 儒敎로써 國基를 삼으려는 당시의 정치풍토를 넉넉히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이 책이 발간되어 유교적 인간상은 이미 忠·孝·烈이라는 절대적인 도덕률에 의해 틀이 잡히기 시작해서, 이것이 한 가정을 유지하고, 한 사회를 형성하고, 한 국가의 기강이 확고해지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나타난 것이 訓民歌系列의 作品이다. 앞서 예를 든 禮曹撰의 《五倫歌》도 그 하나이며, 周愼齋는 海西의 風俗이 貿貿하여 그것을 風化하기 위하여 《五倫歌》를 지었고, 鄭松江 역시 그리하여 《訓民歌》를 지었던 것이다. 朴蘆溪는 五倫을 모르면 "不遠禽獸하기에" 깨우쳐 感激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4.

訓民歌 중에서 父母와 관계되는 作品 몇수를 例示해 본다.

[1] 아바님 날 나ᄒᆞ시고 어마님 날 기르시니,
父母ᄭᅴ 아니시면 내모미 업슬랏다.
이 덕을 갑푸려ᄒᆞ니 하ᄂᆞᆯᄀᆞ이 업스샷다.
(周愼齋 武陵續集 五倫歌 6首中 其二)

[2] 아바님 날 나ᄒᆞ시고 어마님 날 기ᄅᆞ시니,
두분곳 아니시면 이몸이 사라실가.
하ᄂᆞᆯᄀᆞᄐᆞᆫ ᄀᆞ업소 恩德을 어듸다혀 갑ᄉᆞ오리.
阿爸兮生我 阿嬤兮育我
苟非兩恩德兮 而此身兮生嬤
如天罔極恩德 于何可準兮爲報[3]
(宋俛仰亭 五倫歌 5首中 其一)

3) 李相寶, "朴善長의 五倫歌 硏究"(국어국문학회편, 時調文學硏究). " 그의 五倫歌 5首는 『俛仰集』에 漢譯歌가 전하고, 國文原詞는 '父子有親', '長幼有序', '朋友有信'의 3首만이 전하는데, 그것도 松江의 '訓民歌' 속에 그대로 援用되어, 小題도 '父義母慈', '兄友弟恭', '朋友有信'으로 變改되어 있다. 이는 松江이 江原道伯으로서 그곳 百姓들에게 경계하는 자기의 時調와 함께 섞어서 勸勉한 것이다." "今其詞曲 尙流播未泯 而松江鄭公澈訓民歌 第一第二 亦有引而採者."(『俛仰集』 家狀)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3 父母俱存ᄒᆞ시고 兄弟無故ᄒᆞ물
놈대되 닐오ᄃᆡ 우리지븨 ᄀᆞᆺ다터니
어엿븐 이내 ᄒᆞᆫ몸은 이되갔다가 모ᄅᆞ뇨.
(李淑樑 汾川講好歌 其一 此慕父母兄弟之歌也)

4 아버님 날 나ᄒᆞ시고 어마님 날 기ᄅᆞ시니,
두분곳 아니시면 이몸이 사라실가.
하ᄂᆞᆯᄀᆞᄐᆞᆫ ᄀᆞ업ᄉᆞᆫ 恩德을 어ᄃᆡ다혀 갑ᄉᆞ오리.
(鄭松江 訓民歌 16首中 其一)

5 ᄉᆞ마도 못ᄒᆞᆫ 푸리 봄이슬 마준 後에,
닙 넙고 줄기 기러 밤나즈로 부리낫다.
이 恩惠 하 罔極ᄒᆞ니 가플줄을 몰ᄂᆡ라.
(朴水西 五倫歌 5首中 其一 父子)[4]

6 이바 아희들아 내말 들어 ᄇᆡ화ᄉᆞ라.
어버이 孝道ᄒᆞ고 어른을 恭敬ᄒᆞ야,
一生의 孝悌를 닷가 어딘 일흠이더라.
(金尙容 仙源續集 訓戒子孫歌 9章中 其一)

7 아비는 나ᄋᆞ시고 어미는 치옵시니,
昊天罔極이라 갑흘길이 어려우니,
大舜의 終身誠孝도 못다ᄒᆞᆫ가 ᄒᆞ노라.
(朴蘆溪 五倫歌 25首中 父子有親 1)

8 어버히 날 나흐셔 어질고쟈 길러ᄂᆡ니,
이 두分 아니시면 ᄂᆡ몸 나셔 어질소냐.
아마도 至極ᄒᆞᆫ 恩德을 못ᄂᆡ 갑하ᄒᆞ노라.
(朗原君 侃)

9 아버니 나흐시고 님군이 먹이시니,
이 두 분 恩惠는 하ᄂᆞᆯ아릐 ᄀᆞ이업다.
이몸이 죽기를 한ᄒᆞ여 아니갑고 어이ᄒᆞ리.
(古今歌曲 9)

---

4) 某 竊歎叔季人心日渝 中宵仰屋 以爲學古訓者 雖或爲物欲所蔽 衷其良心 而開古人書 卽惕然 覺悟者有之 其不曉文義者 因物有遷 終於下流而止耳 此非可哀之甚者耶 因述鄙懷 作五倫歌 又作三章之亂 以文勸懲之義 今玆講信之夕 猥進于左右 幸願諸君子垂覽採之如何(水西集 卷之四)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이 중에서 [1],[2],[4],[8]은 언뜻 보아도 거의 類似한 作品이다. [4]의 鄭松江 作品은 松江歌集을 除外하고도 14種의 文獻에 傳해지고 있으며, 『俛仰集』에 依하면, 원래 宋純의 作品이었다고 한다. 그것이 그대로 《訓民歌》에 들어 있으니, 이러한 作品들은 作家의 創意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主題의 警句性에 의하여 쉽게 노래불려질 수 있었던 것이다. 松江은 陳古靈(襄)의 《仙居勸諭文》諸條에 因하여 지었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孝子〉에 관한 것이 있기는 하나, 앞에 例示한 『詩經』의 《蓼莪》를 우리말化해 놓은 것이다. "父兮生我 母兮鞠我……欲報之思 昊天罔極』에서 初·中·終章中 어느 하나가 追加되었음을 본다. 이것을 周愼齋의 作品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아바님 날 나ᄒᆞ시고, 어마님 날 기르시니=父兮生我 母兮鞠我
② 父母옷 아니시면 내 모미 업슬랏다=
③ 이 덕을 갑프려 ᄒᆞ니 하ᄂᆞᆯ이 업스샷다=欲報之恩 昊天罔極

곧 『詩經』의 "父兮生我 母兮鞠我"와 "欲報之思 昊天罔極"은 이들 時調作品의 骨格을 形成한다. 그래서 [7] 朴蘆溪의 作品도 終章에 大舜誠孝를 例로 追加했고, [9]의 作品에서는 "어마님"의 자리에 "님군"을 넣어 忠孝를 强調했다. 李淑樑의 《汾川講好歌》인 [3]과 金尙容의 《訓戒子孫歌》 [6]은 그 表現하고자 하는 바가 꼭 〈孝〉에만 限하지 않고, 〈孟子〉의 〈人生三樂〉中의 하나인 "父母俱存 兄弟無故"와 "孝悌"를 아울러 强調했기에 그 表現이 다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朴水西의 作品인 [5]는 그 表現에 變化를 가져왔으나 終章을 그대로 "이 恩惠 하 罔極ᄒᆞ니 가풀 줄을 몰너라" 하였다. 단지 "父生母育"이란 主旨를 初·中章에서 "寸마도 못ᄒᆞᆫ 푸리 봄이슬 마준 後에, 넙넙고 줄기 기러 밤나ᄌᆞ로 부러낫다"라는 비유의 表現으로 나타난 것만이 다를 뿐이다.

이리하여 作品의 題材가 새로울 것은 하나도 없다. 朴蘆溪는 《五倫歌》〈總論〉에서 "예 들은 것을 모아(爰輯舊聞)"라고 했다. 그러기에 이러한 訓民歌系의 表現形態란 오직 喚起에 있는 것이다. 이 喚起에 의해 感激하게 되고,[5] 感動된 마음과 애절한 심정이 자연히 생기게 되는 것이다.[6] 이러한 效果는 喚起의 內容과 더불어 〈歌〉의 힘에 의존하게 된다. 李退溪는 〈歌〉의 힘을 "가히 鄙吝함을 씻고 서로 감동되어 노래부르는 자나 듣는 자 함께 감동하여 유익함이 없지 않은 것"[7]이라 하였다. 이러한 〈歌〉의 힘이 있기에 〈詞〉

5) 朴蘆溪는 "仔細히 살펴보면 뉘 아니 感激하리"라고 했다(五倫歌 總論).
6) 『五倫行實圖』의 序에서도 "감동된 마음과 애절한 심정이 자연히 생기게 했다"고 했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는 "詩家의 巧"를 다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放翁 申欽은 《放翁詩餘序》에 다음과 같이 썼다.

> 中國의 歌는 風雅를 갖추고 책에 실려 있으나, 우리 나라의 소위 歌라고 하는 것은 다만 賓筵 즐거움만 되면 만족했으니 書籍에 실려 있는 風雅를 쓰지는 못했다. 語音이 달라 中華의 音은 말로써 곧 글이 되지만, 우리 나라의 音은 번역을 기다려 곧 글[文]이 되기 때문이리라. 우리 나라에 才彦이 부족한 것이 아닌데 樂府新聲 같은 것이 전하지 않으니 개탄할 만하고 가히 野하다 이르리다. 내 이미 田園에 돌아왔는데, 세상이 진실로 나를 버렸을 뿐 아니라 내 또한 세상일에 권태를 느꼈기 때문이다. 지난날의 영화로움을 돌아보니 糠粃土苴(쭉정이와 흙부스러기)일 뿐이다. 오직 風物을 대하고 詩를 읊은 즉 憑夫下車의 병이 있어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으면 詩章을 이룬 나머지 우리말로 이어 노래부르고 우리말로써 기록하니 이는 겨우 下里折楊이라 騷壇의 一班을 얻지는 못했으나 遊戲에서 나왔기에 혹 불만한 것이 없지도 않다.[8]

그는 自作 時調를 〈詩餘〉라 하고, 그것을 漢譯했다. 그는 그것을 〈遊戲〉에서 나온 것이라 했다. 〈歌〉는 곧 遊戲의 産物인 것이다. "以方言腔之"라 했을 때 〈腔之〉는 〈歌〉를 말하는 것이다.

〈遊戲〉는 環境 雰圍氣와 관계된다. 歌인 時調는 環境 곧 雰圍氣의 産物이며, 雰圍氣 그 自體가 時調의 一部를 形成하고 있는 것이다. 聾岩은 漁父歌를 얻어 그 前에 "裒集古人賜詠間可歌詩文若干으로 玩悅하던 歌詞를 다 버리고 오직 이 漁父歌에 專意하여 花朝月夕에 把酒呼朋하여 使詠於汾江小艇之上하니 興味尤眞하고 亹亹忘倦하다" 했고, 그 아들 梅岩 李淑樑도 每朔望에 諸幼를 集會시켜 長幼의 禮를 행한 뒤에 冇司로 하여금 講論케 하고 酒後에 迭歌樂章케 했다.

時調는 歌曲에서 派生한 音樂인 관계로 그 種類와 長短法에 있어서도 歌曲의 影響이 많다. 歌曲은 大餘音 中餘音을 갖고 五章으로 불리는데 비해 時調는 餘音 없이 三章으로 불려진다. 平時調를 보면,

	첫째장단	둘째장단	세째장단	네째장단
初 章	5 박	8 박	5 박	8 박

7) 李滉『陶山十二曲』跋 "庶幾可以蕩滌鄙吝 感發融通而歌者與聽者不能無交有益焉"

8) 中國之歌 備風雅而登載籍 我國所謂歌者 只足以爲賓筵之娛 用之風雅載籍則否焉 盖語音殊也 中華之音 以言爲文 我國之音 待譯乃文故 我東方非才彦之乏 而如樂府新聲無傳焉 可愕而所謂野矣 余旣歸田 世固棄我 而我且倦於世故矣 顧平昔榮顯 已糠粃土苴 惟遇物諷詠則 有憑夫下車之病 有所會心 輒形詩章而有餘 纔以方言腔之而記之諺 此僅下里折楊 無得騷壇一班 而其出於遊戲 或不無可觀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中 章	5박	8박	8박	8박
終 章	5박	8박	8박	없음

이와 같다. 노래라는 것을 重視하여 그 詞의 意味形態도 위의 曲調에 對應시켜 파악해야 할 것이다. 構文的인 構造로 볼 때 주로 3개의 文이 主從의 관계를 形成하는 三行으로 構造되어 條件과 判斷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오히려 箴言的으로 特定하고 一定한 思想 속에 깃든 참된 意味內實을 擧示해 줌으로 喚起의 作用을 하게 된다. 이러한 表現이 訓民家系 時調作品의 한 特性을 이룬다고 하겠다.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